

글\_ 이정훈(경영학 박사, 흥사단 윤리연구소장)

## 通하는 윤리경영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국민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師弟之關係(사제지관계)를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핵심이다.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가 상호 연관할 수 있는 관계적 합리성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라는 존재가 ‘너’와 소통하지 못하고 또 기업이 사회와도 소통하지 못한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자폐적으로 되어간다면 결국 병들기 마련이다. 육체적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혹은 사회적 건강이든 관건은 ‘通’과 ‘不通’의 문제로 압축된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 당위성을 근거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듯이, 벤처기업 역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차별화를 구사하게 된다. 벤처기업은 시스템과 경영역량 모두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여 취약한 경쟁력을 지니지만, 소수의 집중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규모가 작아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며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다. 또한 변화를 겪는 조직의 유동성이 뛰어나 이는 사업 주체로서의 존재 근거가 된다.

###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경영은 시장과 주주,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며 소규모 기업에서 소통은 생명과도 같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시장의 반응을 기다릴 여유가 부족해 단시간 내에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권한의 위임이 어려워 리더십은 더욱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리더십은 조직내외부 간 원활한 소통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것에 실패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장하게 되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은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업을 키우고자하는 경영자의 욕망은 바람직하지만, 방법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통이 단절된다. 사업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누군가를 속이며 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는 곧 실패의 지름길이다.

### 건강하지 못한 욕망의 절제

사회적 병리현상이 전개되는 근원에는 사람의 그릇된 욕망이 자리한다.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욕심에 지배당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욕심이다.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 이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건강하지 못한 욕망은 절제되어야 하며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윤리경영이다. 윤리경영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며 장기적 안목과 넓은 시각을 통해 이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패가 만연함은 곧 관계의 왜곡을 의미한다. 경영에서 나타난 대표적 왜곡은 분식회계로 이는 시장과의 소통을 왜곡시킨다. 성장연대에 대기업이 저지른 과오를 2000년대 대표적 벤처기업의 경영인이 흉내를 내 벤처기업의 장점을 시장이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말까지 과거의 분식 사실을 고백한 기업에게는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를 면제해 주고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특례조치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현실이해이다. 또한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만약 과거에 분식의 과오를 범했다면 이를 털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겠다.